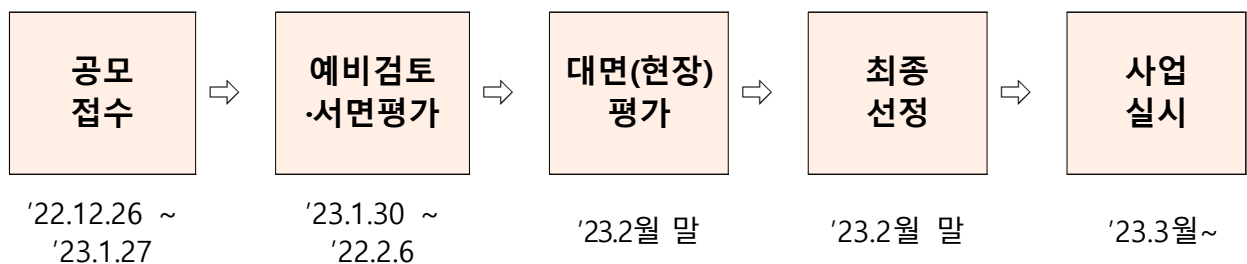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2. 12. 23.(금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근오 (044-201-3993)
	물류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신동기 (044-201-3997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5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'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- 수소경제를 준비하는 지자체·민간의 많은 참여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,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.
-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,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'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.

《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선정 일정(안) 》



-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%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.
- 지원자격은 (기초)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(사업비의 30%인 19억)과 수소충전소 부지(자가, 임대차 등)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,

- 요구 조건(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,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,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)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molit.go.kr) 공지사항 사항에 등재된 “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사업 제안요청서” 참고

-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(‘21.10)”, “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(‘21.11)” “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(‘22.10) 등에 따른 수소화물차의 공급·확산을 대비한 사업으로,

< 수소화물차 도입 목표 >

-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‘21.10) : ‘30년까지 버스·택시·화물차 등 사업용 전기·수소차 50만대
- 2050 탄소중립 수송분야 시나리오(‘21.10) : ‘50년까지 전체 차량 중 전기·수소차 85%~97% 보급
-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(‘21.11) : ‘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, ‘50년까지 5만대

- 국토교통부는 화물차휴게소, 차고지,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형 화물차(11톤급)용 수소충전소를 매년 2개소씩 구축을 추진하여, 현재 인천, 울산, 창원, 성주에서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.

<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지 현황 >

사업지	대상지	참여 기관	특 징
울 산	상개화물차 휴게소	▸ 울산시 / 한국수소산업협회	▸ 미포·온산국가산단 및 울산항 인근 물류거점
인 천	인천화물차 휴게소	▸ 인천시 / SK에너지	▸ 공항·항만 및 아암물류단지 인근 물류거점
창 원	신항화물차 휴게소	▸ 창원시 / 창원산업진흥원	▸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인 신항·진해 신항 인근
성 주	성주(창원) 휴게소	▸ 한국도로공사 / 코스텍크	▸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로, 전체 교통량 중 버스·화물 차량이 40% 이상

-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“경유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은 수소경제 도입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 요소로서,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” 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수소화물차의 원활한 공급과 편리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